

2024
고2 문학
신사고

고2 문학 신사고 | 1(2)(3) 복어 대가리 내신형 기출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직전 보강 유형

인물에 대해 묻는 문제, 구절에 기호를 붙여 그 의미를 묻는 문제가 최다 빈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특징을 정리해 두어야 하며 인물들의 대사나 행동 지시문의 의미들도 인물의 의도와 연결하여 꼼꼼하게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 두 명의 창고지기인 자양과 기임은 새벽마다 트럭에 실려 온 상자를 내리고 창고에 보관된 상자를 트럭에 싣는 일을 한다. 매사에 꼼꼼하게 일하는 자양과 달리 기임은 자신의 일에 회의를 느끼며 자양의 성실함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기임은 상자를 싣고 내리는 일보다 트럭 운전수의 딸인 다령과의 만남에 열중한다. 창고를 나가고 싶어 하는 기임은 다령의 부추김에 상자 하나를 바꾸어 트럭에 싣는다. 이를 뒤늦게 알아챈 자양은 잘못 나간 상자 번호를 확인하고, 상자 주인에게 잘못을 시인하는 편지를 쓴다.

등장인물 자양(창고지기), 기임(창고지기), 트럭 운전수, 다령(트럭 운전수의 딸)

창고 밖으로 상자들을 옮기고 있던 자양과 트럭 운전수 사이에 언쟁이 벌어진다. 자양은 트럭 운전수에게 편지를 전달해 주도록 간청하고 운전수는 목청을 높여 가며 거절의 이유를 설명한다.

운전수: 그건 미친 짓이야! 일부터 잘못했다고 편지를 보낼 필요는 없어!

자양: (편지를 운전수에게 내밀며) 제발 보내야 해요!

운전수: 여봐, 내가 상자들을 운반하고 다니니까 상자 주인과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한 모양인데, 그건 큰 착각이야. ㉠난 말이야,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싣고 왔다가 그냥 실어 가는 거라구. 실제로 내가 아는 건, 정거장에서 여러 트럭들이 상자를 나눠 받을 때 만나는 분배 반장 딸기코하고, 창고에 보관했다가 다시 나눠 싣고 정거장에 가서 만나는 접수 반장 외눈깔, 그 둘뿐이라구. 딸기코와 외눈깔은 내가 붙인 별명인데, 물론 진짜 이름이야 있겠지. 하지만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지 않고 노름꾼이라 하듯이 나도 그들을 별명으로만 불러. 어쨌든 딸기코가 상자를 분배하는 곳은 정거장의 왼쪽이고, 외눈깔이 상자를 접수하는 곳은 정거장의 오른쪽이야. ㉡그래서 그들은 같은 정거장에서 둘 다 상자를 취급하면서도 서로 얼굴 한번 볼 수조차 없어.

자양: 별명이든 이름이든 상관없어요. (편지를 억지로 운전수 손에 쥐어 준다.) 상자를 싣고 가는 곳에 내 편지를 갖다주면서, 다음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하면 되거든요.

운전수: 내가 자네 편지를 외눈깔에게 주면, 외눈깔은 그다음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다음 사람은 또 다음 사람에게…… 계속해서 운반되는 상자들을 따라가 맨 나중에 주인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거지?

자양: 네, 바로 그겁니다.

운전수: 그게 또 큰 착각이라구. 부속품이 든 상자들은 말야, 중간중간에서 여러 갈래로 수없이 나눠 지거든.

자양: 부속품 상자들은 결국 한 군데로 모아지는 것이 아닙니까?

운전수: 물론, 모아지는 곳도 있겠지. 상자들이 한 군데에서 나와 여러 군데로 흩어지느냐, 여러 군데에서 나와 한 군데로 모아지느냐……. 그건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어쨌든 중간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

자양: 그래도 상자 주인에게는 반드시 알려 줘야죠. 엉뚱하게 바뀐 상자 하나 때문에 뭔가 잘못 만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운전수: 잘못 만들어진다니……. 그게 뭔데?

다령: (멀리서 듣고 있다가 큰 소리로 외친다.) 어떤 굉장한 기계래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즐겁고 기쁘게 해 주는 신기한 기계죠!

운전수: (다링에게 외친다.) 무슨 기계라구?

다링: (큰 소리로) 기계가 아니라 폭탄이래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죽여요!

운전수: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자앙에게) 어쨌든 상자 속의 부속품으로 뭘 만드는지 알 수는 없어. 만약 폭탄을 만든다면 오히려 상자가 바뀐 것이 사람들의 목숨을 살릴 테니까 잘된 일이잖아? (자앙의 편지를 허공에 들고 두 조각으로 찢으며) 여봐, 자넨 너무 배짱이 약해. 이 조그만 창고 속에서 모든 걸 성실하게 잘했다는 것이, 창고 밖에서는 매우 큰 잘못이 된다고 생각해봐. 그럼 상자 하나쯤 틀렸다고 안절부절못하진 않을 거야. (두 조각으로 찢은 편지를 자앙의 바지 양쪽 호주머니에 쑤셔 넣는다.) 무슨 일이 생겨도 창고 밖으로 알릴 필요는 없어. @그게 잘한 일인지 못한 일인지 모를 바에야 그냥 덮어두라구. 창고 속의 자네한테는, 그게 배짱 편한 거야.

자앙: (손에 들고 있는 서류를 가리키며) 그렇다면 이 서류들은 뭘니까? 누군가 이 서류들을 보면, 상자가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운전수: 서류가 완전하다고 믿는 건 바보들뿐이지! 좋은 예가 있어. 내 아내는 옛날에 죽었는데 사망 신고를 안 했거든. 그래서 구청에서 호적을 떼어보면 지금도 서류상으로는 버젓하게 살아 있는 것으로 나온다구. 자, 굼벵이 양반, 꾸물대지 말고 어서 상자들이나 옮겨!

자앙과 트럭 운전수, 손수레에 실은 상자들을 창고 밖으로 운반해 간다. 침대에 앉아 있던 기임은 일어나서 자신의 담요를 둘둘 말아 걷는다. 그리고 침대맡의 낡은 짐 가방을 꺼내 물건을 주워 담는다. 다링, 기임의 곁으로 다가온다.

다링: 마침내 결정한 거예요?

기임: 그래, 함께 가서 살기로 했어.

다링: (살림 도구들이 있는 곳에서 접시, 그릇, 찻잔들을 가져와 낡은 짐 가방에 담으며) 무조건 다 가져가요.

기임: (다링이 담은 것들을 다시 꺼내 놓으며) 아냐, 반절만 내 것인걸!

다링: 둘이서 함께 쓰던 물건은 어찌려구요? 반절로 나눌 수도 없잖아요.

자앙과 운전수, 손수레에 상자를 싣고 창고 안으로 들어온다.

운전수: 우린 트럭에 상자들을 다 옮겼어. 그런데 너희는 짐도 안 싸고 뭘 했지?

자앙: 짐이라니……?

기임: 으음, 그렇게 됐어. 오늘 나는 이 창고 속을 떠난다구!

자앙: 정말 가는 거야? 이렇게 갑자기……?

기임: 미안해! 그런데 막상 떠나려니까 조금은 서운하군. (창고 안을 둘러보며) 너하고 여기서 얼마나 살았더라……? 몇십 년은 훨씬 더 될 거야, 아냐…….

자앙: 그래……. 우린 철부지 시절부터 이 창고지 기였어.

기임: 언제나 너는 나를 고맙게도 보살펴 줬지.

자앙: 날 의붓어미라고 미워했으면서 뭘…….

기임: 진짜로 미워한 건 아니잖아?

자앙: 나도 알아. (기임을 껴안는다.) 제발 가지 말아! 이 창고도, 나도, 전혀 달라진 게 없잖아?

기임: 그건 안 돼. 이 창고는 더 이상 내가 살 곳이 아냐.

운전수: 남자들끼리 헤어지면서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창고 밖으로 나가며) 시간 없어! 나 먼저 트럭에 가서 있을 테니까 너희는 어서 짐 싸 들고 나와!

다링: (늦쇠 국자로 소리 나게 두드리며) 그만하고, 서로 자기 물건들이나 골라 봐요.

기임: (자앙의 포옹을 풀며) 난 내 물건을 잘 모르겠어. 굼벵이, 네가 골라 줘.

자앙: 아냐, 쓸 만한 게 있거든 모두 네가 가져.

기임: 너는 이 창고 속에서 혼자 살 텐데…….

자앙: 내 걱정은 말고 어서 먼저 골라 봐. 그리고 내가 너한테 줄 게 있어. (침대 밑의 상자들 중에서 화려한 색깔의 스웨터를 찾아낸다.) 너의 생일날 주려고 두었던 건데, 헤어지는 날 선물이 됐군.

기임: (자앙에게서 스웨터를 받아 몸에 대본다.) 근사한데!

다링: (자앙의 침대 밑을 바라보며) 좋은 건 이 속에 다 있잖아요! 이걸 가져가도 돼요?

기임: 안 돼, 그건 손대지 마.

자앙: 가져가요.

다링: (자앙의 침대 밑에서 상자 하나를 꺼낸다.)

이건 뭐죠?

자양: 북어 대가리죠. 그건 가져가세요. 꼭 필요할 겁니다.

다령: 북어 대가리……?

기임: 이게 왜 필요한지는 두고 보면 알게 될 거야. (상자를 열어서 북어 대가리를 하나 꺼내 자양에게 준다.) 난 너한테 이것밖에 줄 게 없군. 내 생각이 날 거야. 항상 곁에 두고 보라구.

자양: (북어 대가리를 받으며) 그래, 언제나 내 곁에 두고 볼게.

창고 밖에서 트럭의 재촉하는 경음기가 울린다. 다령은 서둘러서 물건들을 담요에 담는다.

다령: 아버지가 재촉해요. (상자와 담요를 들며) 어서 들고 나가요.

기임: (짐 가방을 들고, 자양에게) 그럼 잘 있어.

자양: (마지못해 대답한다.) 잘 가……. 가서 행복해.

기임과 다령, 창고 밖으로 나간다. 자양은 북어 대가리를 식탁 위에 놓고, 떠나는 기임을 바라본다. 창고 문 앞에서 자양과 기침의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기임: (소리) 이 창고 앞의 상자들은 어쩔 거야? 내가 좀 창고 안에 옮겨 주고 갈까?

자양: 괜찮아!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어!

창고 밖으로 떠나는 것이 즐겁다는 듯이 기임의 환호성이 들린다. 트럭 운전수와 다령의 웃음소리로 들린다. 잠시 후, 트럭이 경음기를 울리며 떠나는 소리가 들린다. 창고는 조용해진다. 자양, 식탁 앞에 힘없이 주저앉는다. 늙고 허약해진 모습이다. 그는 식탁 위에 놓여 있는 ㉠북어 대가리를 물끄러미 바라본다.

자양: 그래, 나도 너처럼 머리만 남았군. 그저 쓸쓸하고…… 허무한 생각으로 가득 찬…… 머리만…… 덜렁…… 남은 거야. (두 손으로 북어 대가리를 집어서 얼굴 가까이 마주 바라보며) 말해 보렴, 네 눈엔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그토록 오랜 나날…… 나는 이 어둡고 조그만 창고 속에서…… 행복했었다. 상자들을 옮겨 오고…… 내보내며…… 내

가 맡고 있는 일을 성실하게 잘하고 있다는 뿌듯함…… 그게 내 삶을 지탱해 왔었는데……. 그러나 만약에…… 세상이 엉뚱하게 잘못되고 있는 것이라면…… 이 창고 속에서의 성실함이…… 무슨 소용 있는 거지? (사이) 북어 대가리야, 왜 말이 없냐? 멀뚱멀뚱 바라만 볼 뿐 왜 대답이 없어? (북어 대가리를 식탁 위에 내려놓는다.) ㉠아냐, 내 의심은 틀린 거야. 덜렁 남은 머릿속의 생각만으로 세상을 잘못 봤다고 판단해선 안 돼. (손수레에 실린 상자를 서류와 대조하며 혼자서 쌓기 시작한다.) 제자리에 상자들을 옮겨 놓아라! 정확하게 쌓아! 틀리면 안 돼! 단 하나의 착오도 없게,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된다.

자양, 느릿느릿 정성을 다해 상자들을 쌓는다. 무대 조명, 서서히 자양에게 압축되면서 암전한다.

— 막

— 이강백, <북어 대가리>

1. 윗글에 나타난 인물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양’과 ‘트럭 운전수’는 사회 현실에 대해 서로 다른 인식을 지니고 있다.
- ② ‘자양’과 ‘기임’은 같은 일을 하지만 자신에 일에 대한 자부심이나 책임감에서 차이를 보인다.
- ③ ‘기임’과 ‘트럭 운전수’는 자신이 하는 일에 절대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 ④ ‘트럭 운전수’는 창고 밖의 생활도 창고 안의 생활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는 인물이다.
- ⑤ ‘다령’은 ‘자양’의 고민에 대해 실질적인 정보를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미래를 암시하는 인물이다.

2. 윗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양은 자신이 하는 일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고 있지만, 운전수는 알지 못한다.
- ② 자양은 서류를 판단과 행위의 기준으로 삼는 반면, 운전수는 신뢰할 수 없는 대상으로 여긴다.
- ③ 다령은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성격이지만, 기임은 함께 생활한 자양에 대한 배려를 보여주고 있다.
- ④ 자양은 자신의 편지가 매우 중요한 것이라 믿지만, 운전수는 자양의 편지가 아무 가치가 없다고 여긴다.
- ⑤ 기임은 일상에 회의와 불만을 품고 현실을 벗어나고자 하지만, 자양은 성실한 자세로 현실에 순응하며 살아간다.

3.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양은 편지를 상자 주인에게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군.
- ② 사건을 덮으려는 운전수는 자신이 맡은 일에 책임감이 부족하군.
- ③ 자양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책임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군.
- ④ 자양은 상자의 용도를 알고 편지를 보내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하고 있군.
- ⑤ ‘운전수’나 ‘딸기코’, ‘외눈깔’과 같이 등장인물을 직업이나 별명으로 명명함으로써 현대 사회의 익명성을 드러냈군.

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기계화된 삶을 살아가는 개인의 모습을 나타낸다.
- ② ㉡: 개인이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낸다.
- ③ ㉢: 개인이 전체가 아닌 부분만을 담당하는 분업화된 사회의 모습을 나타낸다.
- ④ ㉣: 부조리한 현실에서 개개인의 잘못을 가리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드러난다.
- ⑤ ㉤: 사회에 대한 불신으로 개인의 신념이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낸다.

5. 윗글에서 ㉠이 지닌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실천력과 방향성을 상실한 인간
- ② 쓸쓸하고 허무한 생각만 가득찬 인간
- ③ 삶과 세계를 정확하게 성찰하지 못하는 인간
- ④ 진정한 삶의 가치를 상실하고 소외되어 가는 인간
- ⑤ 진실을 외면한 채 시류에 영합하여 안일을 추구하는 인간

신유형

인물과 소재에 대해 묻는 문제 이외에도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 <보기>를 적용하는 문제 등이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이 작품의 갈래가 시나리오 희곡인 만큼, 희곡의 특징을 묻는 문제와 이 작품을 공연하고자 할 때 연출 계획을 묻는 문제도 출제되었습니다. 여러 유형들을 접해 보면서 이 작품의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상 특징도 공부할 수 있습니다.

[6~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 두 명의 창고지기인 자양과 기임은 새벽마다 트럭에 실려 온 상자를 내리고 창고에 보관된 상자를 트럭에 싣는 일을 한다. 매사에 꼼꼼하게 일하는 자양과 달리 기임은 자신의 일에 회의를 느끼며 자양의 성실함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기임은 상자를 싣고 내리는 일보다 트럭 운전수의 딸인 다령과의 만남에 열중한다. 창고를 나가고 싶어 하는 기임은 다령의 부추김에 상자 하나를 바꾸어 트럭에 싣는다. 이를 뒤늦게 알아챈 자양은 잘못 나간 상자 번호를 확인하고, 상자 주인에게 잘못을 시인하는 편지를 쓴다.

등장인물 자양(창고지기), 기임(창고지기), 트럭 운전수, 다령(트럭 운전수의 딸)

창고 밖으로 상자들을 옮기고 있던 자양과 트럭 운전수 사이에 언쟁이 벌어진다. 자양은 트럭 운전수에게 편지를 전달해 주도록 간청하고 운전수는 목청을 높여 가며 거절의 이유를 설명한다.

운전수: ㉠그건 미친 짓이야! 일부러 잘못했다고 편지를 보낼 필요는 없어!

자양: (편지를 운전수에게 내밀며) 제발 보내야 해요!

운전수: 여봐, 내가 상자들을 운반하고 다니니까 상자 주인과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한 모양인데, 그건 큰 착각이야. 난 말이야,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싣고 왔다가 그냥 실어 가는 거라구. 실제로 내가 아는 건, 정거장에서 여러 트럭들이 상자를 나눠 받을 때 만나는 분배 반장 딸기코하고, 창고에 보관했다

가 다시 나눠 싣고 정거장에 가서 만나는 접수 반장 외눈깔, 그 둘뿐이라구. 딸기코와 외눈깔은 내가 붙인 별명인데, 물론 진짜 이름이야 있겠지. 하지만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지 않고 노름꾼이라 하듯이 나도 그들을 별명으로만 불러. 어쨌든 딸기코가 상자를 분배하는 곳은 정거장의 왼쪽이고, 외눈깔이 상자를 접수하는 곳은 정거장의 오른쪽이야. 그래서 그들은 같은 정거장에서 둘 다 상자를 취급하면서도 서로 얼굴 한번 볼 수조차 없어.

자양: 별명이든 이름이든 상관없어요. (편지를 억지로 운전수 손에 쥐어 준다.) 상자를 싣고 가는 곳에 내 편지를 갖다주면서, 다음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하면 되거든요.

운전수: 내가 자네 편지를 외눈깔에게 주면, 외눈깔은 그다음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다음 사람은 또 다음 사람에게…… 계속해서 운반되는 상자들을 따라가 맨 나중에 주인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거지?

자양: 네, 바로 그겁니다.

운전수: 그게 또 큰 착각이라구. 부속품이 든 상자들은 말야, 중간중간에서 여러 갈래로 수없이 나눠지거든.

자양: 부속품 상자들은 결국 한 군데로 모아지는 것이 아닙니까?

운전수: 물론, 모아지는 곳도 있겠지. 상자들이 한 군데에서 나와 여러 군데로 흩어지느냐, 여러 군데에서 나와 한 군데로 모아지느냐……. 그건 그럴 수도 있구,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어쨌든 중간에 있는 우리가 어떻다고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

자양: 그래도 상자 주인에게는 반드시 알려 줘야죠. 엉뚱하게 바뀐 상자 하나 때문에 뭔가 잘못 만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운전수: 잘못 만들어진다니……. 그게 뭔데?

다령: (멀리서 듣고 있다가 큰 소리로 외친다.) 어떤 굉장한 기계래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즐겁고 기쁘게 해 주는 신기한 기계죠!

운전수: (다령에게 외친다.) 무슨 기계라구?

다령: ㉡(큰 소리로) 기계가 아니라 폭탄이래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죽여요!

운전수: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자양에게) 어쨌든 상자 속의 부속품으로 뭘 만드는지 알 수는 없어. 만약 폭탄을 만든다면 오히려 상자가 바뀐 것이 사람들의 목숨을 살릴 테니까 잘된 일이잖아? (자양의 편지를 허공에 들고 두 조각으로 찢으며) 여

봐, 자넨 너무 배짱이 약해. 이 조그만 창고 속에서 모든 걸 성실하게 잘했다는 것이, 창고 밖에서는 매우 큰 잘못이 된다고 생각해봐. 그럼 상자 하나쯤 틀렸다고 안절부절못하진 않을 거야. (두 조각으로 찢은 편지를 자양의 바지 양쪽 호주머니에 쑤셔 넣는다.) 무슨 일이 생겨도 창고 밖으로 알릴 필요는 없어. 그게 잘한 일인지 못한 일인지 모를 바에야 그냥 덮어두라구. 창고 속의 자네한테는, 그게 배짱 편한 거야.

자양: (손에 들고 있는 서류를 가리키며) 그렇다면 이 서류들은 뭘니까? 누군가 이 서류들을 보면, 상자가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운전수: 서류가 완전하다고 믿는 건 바보들뿐이지! 좋은 예가 있어. 내 아내는 옛날에 죽었는데 사망 신고를 안 했거든. 그래서 구청에서 호적을 떼어보면 지금도 서류상으로는 버젓하게 살아 있는 것으로 나온대구. 자, 굼벵이 양반, 꾸물대지 말고 어서 상자들이나 옮겨!

자양과 트럭 운전수, 손수레에 실은 상자들을 창고 밖으로 운반해 간다. 침대에 앉아 있던 기임은 일어나서 자신의 담요를 둘둘 말아 걷는다. 그리고 침대맡의 낡은 짐 가방을 꺼내 물건을 주워 담는다. 다링, 기임의 곁으로 다가온다.

다링: 마침내 결정한 거예요?

기임: 그래, 함께 가서 살기로 했어.

다링: (살림 도구들이 있는 곳에서 접시, 그릇, 찻잔들을 가져와 낡은 짐 가방에 담으며) 무조건 다 가져가요.

기임: (다링이 담은 것들을 다시 꺼내 놓으며) 아냐, 반절만 내 것인걸!

다링: 둘이서 함께 쓰던 물건은 어쩌려구요? 반절로 나눌 수도 없잖아요.

자양과 운전수, 손수레에 상자를 싣고 창고 안으로 들어온다.

운전수: 우리 트럭에 상자들을 다 옮겼어. 그런데 너희는 짐도 안 싸고 뭘 했지?

자양: 짐이라니……?

기임: 으음, 그렇게 됐어. 오늘 나는 이 창고 속을 떠난대구!

자양: 정말 가는 거야? 이렇게 갑자기……?

기임: 미안해! 그런데 막상 떠나려니까 조금은 서운하군. (창고 안을 둘러보며) 너하고 여기서 얼마나 살았더라……? 몇십 년은 훨씬 더 될 거야, 아마…….

자양: 그래……. 우리 철부지 시절부터 이 창고지 기였어.

기임: 언제나 너는 나를 고맙게도 보살펴 줬지.

자양: 날 의붓어미라고 미워했으면서 뭘…….

기임: 진짜로 미워한 건 아니잖아?

자양: 나도 알아. (기임을 껴안는다.) 제발 가지 말아! 이 창고도, 나도, 전혀 달라진 게 없잖아?

기임: 그건 안 돼. 이 창고는 더 이상 내가 살 곳이 아냐.

운전수: 남자들끼리 헤어지면서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창고 밖으로 나가며) 시간 없어! 나 먼저 트럭에 가서 있을 테니까 너희는 어서 짐 싸 들고 나와!

다링: (늦적 국자로 소리 나게 두드리며) 그만하고, 서로 자기 물건들이나 골라 봐요.

기임: (자양의 포옹을 풀며) 난 내 물건을 잘 모르겠어. 굼벵아, 네가 골라 줘.

자양: 아냐, 쓸 만한 게 있거든 모두 네가 가져.

기임: 너는 이 창고 속에서 혼자 살 텐데…….

자양: 내 걱정은 말고 어서 먼저 골라 봐. 그리고 내가 너한테 줄 게 있어. (침대 밑의 상자들 중에서 화려한 색깔의 스웨터를 찾아낸다.) 너의 생일날 주려고 두었던 건데, 헤어지는 날 선물이 됐군.

기임: (자양에게서 스웨터를 받아 몸에 대본다.) 근사한데!

다링: (자양의 침대 밑을 바라보며) 좋은 건 이 속에 다 있잖아요! 이걸 가져가도 돼요?

기임: 안 돼, 그건 손대지 마.

자양: 가져가요.

다링: (자양의 침대 밑에서 상자 하나를 꺼낸다.) 이건 뭐죠?

자양: 북어 대가리죠. 그건 가져가세요. 꼭 필요할 겁니다.

다링: 북어 대가리……?

기임: 이게 왜 필요한지는 두고 보면 알게 될 거야. (상자를 열어 북어 대가리를 하나 꺼내 자양에게 준다.) 난 너한테 이것밖에 줄 게 없군. 내 생각이 날 거야. 항상 곁에 두고 보라구.

자양: (북어 대가리를 받으며) 그래, 언제나 내 곁에 두고 볼게.

창고 밖에서 트럭의 재촉하는 경음기가 울린다. 다령은 서둘러서 물건들을 담요에 담는다.

다령: 아버지가 재촉해요. (상자와 담요를 들며) 어서 들고 나가요.

기임: (짐 가방을 들고, 자양에게) 그럼 잘 있어.

자양: (마지못해 대답한다.) 잘 가……. 가서 행복해.

기임과 다령, 창고 밖으로 나간다. 자양은 북어 대가리를 식탁 위에 놓고, 떠나는 기임을 바라본다. 창고 문 앞에서 자양과 기침의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기임: (소리) ㉠이 창고 앞의 상자들은 어쩔 거야? 내가 좀 창고 안에 옮겨 주고 갈까?

자양: 괜찮아!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어!

창고 밖으로 떠나는 것이 즐겁다는 듯이 기임의 환호성이 들린다. 트럭 운전수와 다령의 웃음소리로 들린다. 잠시 후, 트럭이 경음기를 울리며 떠나는 소리가 들린다. 창고는 조용해진다. ㉡자양, 식탁 앞에 힘없이 주저앉는다. 늙고 허약해진 모습이다. 그는 식탁 위에 놓여 있는 북어 대가리를 물끄러미 바라본다.

자양: 그래, 나도 너처럼 머리만 남았군. 그저 쓸쓸하고…… 허무한 생각으로 가득 찬…… 머리만…… 덜렁…… 남은 거야. (두 손으로 북어 대가리를 집어서 얼굴 가까이 마주 바라보며) 말해 보렴, 네 눈엔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그토록 오랜 나날…… 나는 이 어둡고 조그만 창고 속에서…… 행복했었다. 상자들을 옮겨 오고…… 내보내며…… 내가 맡고 있는 일을 성실하게 잘하고 있다는 뿌듯함…… 그게 내 삶을 지탱해 왔었는데……. 그러나 만약에…… 세상이 엉뚱하게 잘못되고 있는 것이라면…… 이 창고 속에서의 성실함이…… 무슨 소용 있는 거지? (사이) ㉢북어 대가리아, 왜 말이 없냐? 멀뚱멀뚱 바라만 볼 뿐 왜 대답이 없어? (북어 대가리를 식탁 위에 내려놓는다.) 아냐, 내 의심은 틀린 거야. 덜렁 남은 머릿속의 생각만으로 세상을 잘못

됐다고 판단해선 안 돼. (손수레에 실린 상자를 서류와 대조하며 혼자서 쌓기 시작한다.) 제자리에 상자들을 옮겨 놓아라! 정확하게 쌓아! 틀리면 안 돼! 단 하나의 착오도 없게,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된다.

자양, 느릿느릿 정성을 다해 상자들을 쌓는다. 무대 조명, 서서히 자양에게 압축되면서 암전한다.

— 막

— 이강백, <북어 대가리>

6. 연출자가 ㉠~㉢에 대한 연기를 지시할 때,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운전수는 연성을 높여 확신에 찬 태도로 ㉠을 말해야 합니다.
- ② 다령은 진지한 표정으로 몹시 불안해하며 ㉡을 말해야 합니다.
- ③ 기임은 혼자 남겨진 자양이 염려스럽다는 표정으로 ㉢을 말해야 합니다.
- ④ 자양은 외롭고 쓸쓸한 감정이 드러나도록 ㉡을 연기해야 합니다.
- ⑤ 자양은 혼란스럽다는 표정으로 답답해하며 ㉢을 말해야 합니다.

7. 윗글에 드러난 갈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양의 내적 갈등이 드러난다.
- ② 인물 간의 갈등을 통해 사건을 전개하고 주제를 부각한다.
- ③ 편지 전달 여부를 두고 자양과 운전수의 갈등이 나타난다.
- ④ 서류에 대한 인식 차이로 자양과 운전수의 갈등이 나타난다.
- ⑤ 다령은 상자로 기계와 폭탄 중 무엇을 만드는지 내적 갈등을 하고 있다.

【8~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 두 명의 창고지기인 자양과 기임은 새벽마다 트럭에 실려 온 상자를 내리고 창고에 보관된 상자를 트럭에 싣는 일을 한다. 매사에 꼼꼼하게 일하는 자양과 달리 기임은 자신의 일에 회의를 느끼며 자양의 성실함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기임은 상자를 싣고 내리는 일보다 트럭 운전수의 딸인 다령과의 만남에 열중한다. 창고를 나가고 싶어 하는 기임은 다령의 부추김에 상자 하나를 바꾸어 트럭에 싣는다. 이를 뒤늦게 알아챈 자양은 잘못 나간 상자 번호를 확인하고, 상자 주인에게 잘못을 시인하는 편지를 쓴다.

등장인물 자양(창고지기), 기임(창고지기), 트럭 운전수, 다령(트럭 운전수의 딸)

(가) 창고 밖으로 상자들을 옮기고 있던 자양과 트럭 운전수 사이에 언쟁이 벌어진다. 자양은 트럭 운전수에게 편지를 전달해 주도록 간청하고 운전수는 목청을 높여 가며 거절의 이유를 설명한다.

운전수: 그건 미친 짓이야! 일부러 잘못했다고 편지를 보낼 필요는 없어!

자양: (편지를 운전수에게 내밀며) 제발 보내야 해요!

운전수: 여봐, 내가 상자들을 운반하고 다니니깐 상자 주인과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한 모양인데, 그건 큰 착각이야. 난 말이야,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싣고 왔다가 그냥 실어 가는 거라구. 실제로 내가 아는 건, 정거장에서 여러 트럭들이 상자를 나눠 받을 때 만나는 분배 반장 딸기코하고, 창고에 보관했다가 다시 나눠 싣고 정거장에 가서 만나는 접수 반장 외눈깔, 그 둘뿐이라구. 딸기코와 외눈깔은 내가 붙인 별명인데, 물론 진짜 이름이야 있겠지. 하지만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지 않고 노름꾼이라 하듯이 나도 그들을 별명으로만 불러. 어쨌든 딸기코가 상자를 분배하는 곳은 정거장의 왼쪽이고, 외눈깔이 상자를 접수하는 곳은 정거장의 오른쪽이야. 그래서 그들은 같은 정거장에서 둘 다 상자를 취급하면서도 서로 얼굴 한번 볼 수조차 없어.

자양: 별명이든 이름이든 상관없어요. (편지를 억

지로 운전수 손에 쥐어 준다.) 상자를 싣고 가는 곳에 내 편지를 갖다주면서, 다음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하면 되거든요.

운전수: 내가 자네 편지를 외눈깔에게 주면, 외눈깔은 그다음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다음 사람은 또 다음 사람에게…… 계속해서 운반되는 상자들을 따라가 맨 나중엔 주인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거지?

자양: 네, 바로 그겁니다.

(나) 운전수: 그게 또 큰 착각이라구. 부속품이 든 상자들은 말야, 중간중간에서 여러 갈래로 수없이 나눠지거든.

자양: 부속품 상자들은 결국 한 군데로 모아지는 것이 아닙니까?

운전수: 물론, 모아지는 곳도 있겠지. 상자들이 한 군데에서 나와 여러 군데로 흩어지느냐, 여러 군데에서 나와 한 군데로 모아지느냐……. 그건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어쨌든 중간에 있는 우리가 어떻다고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

자양: 그래도 상자 주인에게는 반드시 알려 줘야죠. 엉뚱하게 바뀐 상자 하나 때문에 뭔가 잘못 만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운전수: 잘못 만들어진다니……. 그게 뭔데?

다령: (멀리서 듣고 있다가 큰 소리로 외친다.) 어떤 굉장한 기계래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즐겁고 기쁘게 해 주는 신기한 기계죠!

운전수: (다령에게 외친다.) 무슨 기계라구?

다령: (큰 소리로) 기계가 아니라 폭탄이래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죽여요!

운전수: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자양에게) 어쨌든 상자 속의 부속품으로 뭘 만드는지 알 수는 없어. 만약 폭탄을 만든다면 오히려 상자가 바뀐 것이 사람들의 목숨을 살릴 테니깐 잘된 일이잖아? (자양의 편지를 허공에 들고 두 조각으로 찢으며) 여봐, 자넨 너무 배짱이 약해. 이 조그만 창고 속에서 모든 걸 성실하게 잘했다는 것이, 창고 밖에서는 매우 큰 잘못이 된다고 생각해봐. 그럼 상자 하나쯤 틀렸다고 안절부절못하진 않을 거야. (두 조각으로 찢은 편지를 자양의 바지 양쪽 호주머니에 쑤셔 넣는다.) 무슨 일이 생겨도 창고 밖으로 알릴 필요는 없어. 그게 잘한 일인지 못한 일인지 모를 바에야 그냥 덮어두라구. 창고 속의 자네한테는, 그게 배짱 편한 거야.

(다) 자양: (손에 들고 있는 서류를 가리키며) 그렇

다면 이 서류들은 뭐니까? 누군가 이 서류들을 보면, 상자가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운전수: 서류가 완전하다고 믿는 건 바보들뿐이지! 좋은 예가 있어. 내 아내는 옛날에 죽었는데 사망 신고를 안 했거든. 그래서 구청에서 호적을 떼어보면 지금도 서류상으로는 버젓하게 살아 있는 것으로 나온다구. 자, 굼벵이 양반, 꾸물대지 말고 어서 상자들이나 옮겨!

자양과 트럭 운전수, 손수레에 실은 상자들을 창고 밖으로 운반해 간다. 침대에 앉아 있던 기임은 일어나서 자신의 담요를 둘둘 말아 걷는다. 그리고 침대맡의 낡은 짐 가방을 꺼내 물건을 주워 담는다. 다링, 기임의 곁으로 다가온다.

다링: 마침내 결정한 거예요?

기임: 그래, 함께 가서 살기로 했어.

다링: (살림 도구들이 있는 곳에서 접시, 그릇, 찻잔들을 가져와 낡은 짐 가방에 담으며) 무조건 다 가져가요.

기임: (다링이 담은 것들을 다시 꺼내 놓으며) 아냐, 반절만 내 것인걸!

다링: 둘이서 함께 쓰던 물건은 어찌려구요? 반절로 나눌 수도 없잖아요.

자양과 운전수, 손수레에 상자를 싣고 창고 안으로 들어온다.

운전수: 우리 트럭에 상자들을 다 옮겼어. 그런데 너희는 짐도 안 싸고 뭘 했지?

자양: 짐이라니……?

기임: 으음, 그렇게 됐어. 오늘 나는 이 창고 속을 떠난다구!

자양: 정말 가는 거야? 이렇게 갑자기……?

기임: 미안해! 그런데 막상 떠나려니까 조금은 서운하군. (창고 안을 둘러보며) 너하고 여기서 얼마나 살았더라……? 몇십 년은 훨씬 더 될 거야, 아마…….

자양: 그래…… 우리 철부지 시절부터 이 창고지 기였어.

기임: 언제나 너는 나를 고맙게도 보살펴 줬지.

자양: 날 의붓어미라고 미워했으면서 뭘…….

기임: 진짜로 미워한 건 아니잖아?

자양: 나도 알아. (기임을 껴안는다.) 제발 가지 말아! 이 창고도, 나도, 전혀 달라진 게 없잖아?

기임: 그건 안 돼. 이 창고는 더 이상 내가 살 곳이 아냐.

운전수: 남자들끼리 헤어지면서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창고 밖으로 나가며) 시간 없어! 나 먼저 트럭에 가서 있을 테니까 너희는 어서 짐 싸 들고 나와!

다링: (놋쇠 국자로 소리 나게 두드리며) 그만하고, 서로 자기 물건들이나 골라 봐요.

기임: (자양의 포옹을 풀며) 난 내 물건을 잘 모르겠어. 굼벵아, 네가 골라 줘.

자양: 아냐, 쓸 만한 게 있거든 모두 네가 가져.

기임: 너는 이 창고 속에서 혼자 살 텐데…….

자양: 내 걱정은 말고 어서 먼저 골라 봐. 그리고 내가 너한테 줄 게 있어. (침대 밑의 상자들 중에서 화려한 색깔의 스웨터를 찾아낸다.) 너의 생일날 주려고 두었던 건데, 헤어지는 날 선물이 됐군.

기임: (자양에게서 스웨터를 받아 몸에 대본다.) 근사한데!

다링: (자양의 침대 밑을 바라보며) 좋은 건 이 속에 다 있잖아요! 이걸 가져가도 돼요?

기임: 안 돼, 그건 손대지 마.

자양: 가져가요.

다링: (자양의 침대 밑에서 상자 하나를 꺼낸다.) 이건 뭐죠?

자양: 북어 대가리죠. 그건 가져가세요. 꼭 필요할 겁니다.

다링: 북어 대가리……?

기임: 이게 왜 필요한지는 두고 보면 알게 될 거야. (상자를 열어서 북어 대가리를 하나 꺼내 자양에게 준다.) ㉠난 너한테 이것밖에 줄 게 없군. 내 생각이 날 거야. 항상 곁에 두고 보라구.

자양: (북어 대가리를 받으며) 그래, 언제나 내 곁에 두고 볼게.

창고 밖에서 트럭의 재촉하는 경음기가 울린다. 다링은 서둘러서 물건들을 담요에 담는다.

다링: 아버지가 재촉해요. (상자와 담요를 들며) 어서 들고 나가요.

기임: (짐 가방을 들고, 자양에게) 그럼 잘 있어.

자양: (마지못해 대답한다.) 잘 가……. 가서 행복

해.

기임과 다림, 창고 밖으로 나간다. 자양은 북어 대가리를 식탁 위에 놓고, 떠나는 기임을 바라본다. 창고 문 앞에서 자양과 기침의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기임: (소리) 이 창고 앞의 상자들은 어쩔 거야? 내가 좀 창고 안에 옮겨 주고 갈까?

자양: 괜찮아!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어!

(라) 창고 밖으로 떠나는 것이 즐겁다는 듯이 기임의 환호성이 들린다. 트럭 운전수와 다림의 웃음소리로 들린다. 잠시 후, 트럭이 경음기를 울리며 떠나는 소리가 들린다. 창고는 조용해진다. 자양, 식탁 앞에 힘없이 주저앉는다. 늙고 허약해진 모습이다. 그는 식탁 위에 놓여 있는 북어 대가리를 물끄러미 바라본다.

자양: 그래, 나도 너처럼 머리만 남았군. 그저 쓸쓸하고…… 허무한 생각으로 가득 찬…… 머리만…… 덜렁…… 남은 거야. (두 손으로 북어 대가리를 집어서 얼굴 가까이 마주 바라보며) 말해 보렴, 네 눈엔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그토록 오랜 나날…… 나는 이 어둡고 조그만 창고 속에서…… 행복했었다. 상자들을 옮겨 오고…… 내보내며…… 내가 맡고 있는 일을 성실하게 잘하고 있다는 뿌듯함…… 그게 내 삶을 지탱해 왔었는데……. 그러나 만약에…… 세상이 엉뚱하게 잘못되고 있는 것이라면…… 이 창고 속에서의 성실함이…… 무슨 소용 있는 거지? (사이) 북어 대가리야, 왜 말이 없냐? 멀뚱멀뚱 바라만 볼 뿐 왜 대답이 없어? (북어 대가리를 식탁 위에 내려놓는다.) 아냐, 내 의심은 틀린 거야. 덜렁 남은 머릿속의 생각만으로 세상을 잘못봤다구 판단해선 안 돼. (손수레에 실린 상자를 서류와 대조하며 혼자서 쌓기 시작한다.) 제자리에 상자들을 옮겨 놓아라! 정확하게 쌓아! 틀리면 안 돼! 단 하나의 착오도 없게,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된다.

자양, 느릿느릿 정성을 다해 상자들을 쌓는다. 무대 조명, 서서히 자양에게 압축되면서 암전한다.

— 막

- 이강백, <북어 대가리>

8.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서는 개인적인 성향에 따른 갈등이 나타나지만 그 이면에는 개인의 노동이 파편화되고 각 존재들이 사회의 부속품처럼 된 현대 사회의 근원적인 문제가 깔려있어.
- ② (가)는 현대 산업 사회의 인간관계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어. 서로가 서로의 고유한 본질이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은 채 피상적인 관계만 맺고 있는 현실과 연관 지어 볼 수 있어.
- ③ (나), (다)를 통해서는 개인이 하는 일이 사회 전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알 수 없으며, 겉으로 나타나는 상황이 실제와는 동떨어진 현대 사회의 모습을 엿볼 수 있어.
- ④ (라)에 나타난 '자양'의 일시적인 회의는 (가), (나), (다)의 사회 현실에 내재된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어.
- ⑤ (라)에서 '자양'이 잠시 자신의 정체성이나 존재 가치에 회의를 느끼다가 다시 이를 추스르는 것을 통해 현대인의 소외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어.

9. ㉠에서 '기임'이 '자양'에게 준 '북어 대가리'가 '자양'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서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성실하게 살아온 '자양'에게 삶의 회의를 느끼게 한다.
- ② '자양'은 '북어 대가리'와 처지가 비슷하다고 여기며 '창고'를 떠나는 '기임'을 부러워한다.
- ③ 삶과 세계에 대한 성찰은 하지만 결국 창고 안에서 해 온 일들을 반복하고 있다.
- ④ 몸통이 없다는 점에서 실천력과 방향성을 상실한 자양의 상황을 나타낸다.
- ⑤ 궁극적으로는 가치관의 혼란과 부재를 겪는 현대인의 모습을 나타낸다.

【10~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앞부분의 줄거리 ▶ 두 명의 창고지기인 자양과 기임은 새벽마다 트럭에 실려 온 상자를 내리고 창고에 보관된 상자를 트럭에 싣는 일을 한다. 매사에 꼼꼼하게 일하는 자양과 달리 기임은 자신의 일에 회의를 느끼며 자양의 성실함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기임은 상자를 싣고 내리는 일보다 트럭 운전수의 딸인 다령과의 만남에 열중한다. 창고를 나가고 싶어 하는 기임은 다령의 부추김에 상자 하나를 바꾸어 트럭에 싣는다. 이를 뒤늦게 알아챈 자양은 잘못 나간 상자 번호를 확인하고, 상자 주인에게 잘못을 시인하는 편지를 쓴다.

등장인물 자양(창고지기), 기임(창고지기), 트럭 운전수, 다령(트럭 운전수의 딸)

창고 밖으로 상자들을 옮기고 있던 자양과 트럭 운전수 사이에 언쟁이 벌어진다. 자양은 트럭 운전수에게 편지를 전달해 주도록 간청하고 운전수는 목청을 높여 가며 거절의 이유를 설명한다.

운전수: 그건 미친 짓이야! 일부러 잘못했다고 편지를 보낼 필요는 없어!

자양: (편지를 운전수에게 내밀며) 제발 보내야 해요!

운전수: 여봐, 내가 상자들을 운반하고 다니니깐 상자 주인과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한 모양인데, 그건 큰 착각이야. 난 말이야,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싣고 왔다가 그냥 실어 가는 거라구. 실제로 내가 아는 건, 정거장에서 여러 트럭들이 상자를 나눠 받을 때 만나는 분배 반장 딸기코하고, 창고에 보관했다가 다시 나눠 싣고 정거장에 가서 만나는 접수 반장 외눈깔, 그 둘뿐이라구. 딸기코와 외눈깔은 내가 붙인 별명인데, 물론 진짜 이름이야 있겠지. 하지만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지 않고 노름꾼이라 하듯이 나도 그들을 별명으로만 불러. 어쨌든 딸기코가 상자를 분배하는 곳은 정거장의 왼쪽이고, 외눈깔이 상자를 접수하는 곳은 정거장의 오른쪽이야. 그래서 그들은 같은 정거장에서 둘 다 상자를 취급하면서도 서로 얼굴 한번 볼 수조차 없어.

자양: 별명이든 이름이든 상관없어요. (편지를 억

지로 운전수 손에 쥐어 준다.) 상자를 싣고 가는 곳에 내 편지를 갖다주면서, 다음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하면 되거든요.

운전수: 내가 자네 편지를 외눈깔에게 주면, 외눈깔은 그다음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다음 사람은 또 다음 사람에게…… 계속해서 운반되는 상자들을 따라가 맨 나중엔 주인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거지?

자양: 네, 바로 그겁니다.

운전수: 그게 또 큰 착각이라구. 부속품이 든 상자들은 말야, 중간중간에서 여러 갈래로 수없이 나눠지거든.

자양: 부속품 상자들은 결국 한 군데로 모아지는 것이 아닙니까?

운전수: 물론, 모아지는 곳도 있겠지. 상자들이 한 군데에서 나와 여러 군데로 흩어지느냐, 여러 군데에서 나와 한 군데로 모아지느냐……. 그건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어쨌든 중간에 있는 우리가 어떻다고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

자양: 그래도 상자 주인에게는 반드시 알려 줘야죠. 엉뚱하게 바뀐 상자 하나 때문에 뭔가 잘못 만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운전수: 잘못 만들어진다니……. 그게 뭔데?

다령: (멀리서 듣고 있다가 큰 소리로 외친다.) 어떤 굉장한 기계래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즐겁고 기쁘게 해 주는 신기한 기계죠!

운전수: (다령에게 외친다.) 무슨 기계라구?

다령: (큰 소리로) 기계가 아니라 폭탄이래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죽여요!

운전수: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자양에게) 어쨌든 상자 속의 부속품으로 뭘 만드는지 알 수는 없어. 만약 폭탄을 만든다면 오히려 상자가 바뀐 것이 사람들의 목숨을 살릴 테니깐 잘된 일이잖아? (자양의 편지를 허공에 들고 두 조각으로 찢으며) 여봐, 자넨 너무 배짱이 약해. 이 조그만 창고 속에서 모든 걸 성실하게 잘했다는 것이, 창고 밖에서는 매우 큰 잘못이 된다고 생각해봐. 그럼 상자 하나쯤 틀렸다고 안절부절못하진 않을 거야. (두 조각으로 찢은 편지를 자양의 바지 양쪽 호주머니에 쑤셔 넣는다.) 무슨 일이 생겨도 창고 밖으로 알릴 필요는 없어. 그게 잘한 일인지 못한 일인지 모를 바에야 그냥 덮어두라구. 창고 속의 자네한테는, 그게 배짱 편한 거야.

자양: (손에 들고 있는 서류를 가리키며) 그렇다면

이 서류들은 뭐니까? 누군가 이 서류들을 보면, 상자가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운전수: 서류가 완전하다고 믿는 건 바보들뿐이지! 좋은 예가 있어. 내 아내는 옛날에 죽었는데 사망 신고를 안 했거든. 그래서 구청에서 호적을 떼어보면 지금도 서류상으로는 버젓하게 살아 있는 것으로 나온다구. 자, 굼벡이 양반, 꾸물대지 말고 어서 상자들이나 옮겨!

자양과 트럭 운전수, 손수레에 실은 상자들을 창고 밖으로 운반해 간다. 침대에 앉아 있던 기임은 일어나서 자신의 담요를 둘둘 말아 걷는다. 그리고 침대맡의 낡은 짐 가방을 꺼내 물건을 주워 담는다. 다링, 기임의 곁으로 다가온다.

다링: 마침내 결정한 거예요?

기임: 그래, 함께 가서 살기로 했어.

다링: (살림 도구들이 있는 곳에서 접시, 그릇, 찻잔들을 가져와 낡은 짐 가방에 담으며) 무조건 다 가져가요.

기임: (다링이 담은 것들을 다시 꺼내 놓으며) 아냐, 반절만 내 것인걸!

다링: 둘이서 함께 쓰던 물건은 어쩌려구요? 반절로 나눌 수도 없잖아요.

자양과 운전수, 손수레에 상자를 싣고 창고 안으로 들어온다.

운전수: 우리 트럭에 상자들을 다 옮겼어. 그런데 너희는 짐도 안 싸고 뭘 했지?

자양: 짐이라니……?

(나) 기임: 으음, 그렇게 됐어. 오늘 나는 이 창고 속을 떠난다구!

자양: 정말 가는 거야? 이렇게 갑자기……?

기임: 미안해! 그런데 막상 떠나려니까 조금은 서운하군. (창고 안을 둘러보며) 너하고 여기서 얼마나 살았더라……? 몇십 년은 훨씬 더 될 거야, 아 마…….

자양: 그래…… 우리 철부지 시절부터 이 창고지 기였어.

기임: 언제나 너는 나를 고맙게도 보살펴 줬지.

자양: 날 의붓어미라고 미워했으면서 뭘…….

기임: 진짜로 미워한 건 아니잖아?

자양: 나도 알아. (기임을 껴안는다.) 제발 가지 말아! 이 창고도, 나도, 전혀 달라진 게 없잖아?

기임: 그건 안 돼. 이 창고는 더 이상 내가 살 곳이 아냐.

운전수: 남자들끼리 헤어지면서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창고 밖으로 나가며) 시간 없어! 나 먼저 트럭에 가서 있을 테니까 너희는 어서 짐 싸 들고 나와!

다링: (늦쇠 국자로 소리 나게 두드리며) 그만하고, 서로 자기 물건들이나 골라 봐요.

기임: (자양의 포옹을 풀며) 난 내 물건을 잘 모르겠어. 굼벡아, 네가 골라 줘.

자양: 아냐, 쓸 만한 게 있거든 모두 네가 가져.

기임: 너는 이 창고 속에서 혼자 살 텐데…….

자양: 내 걱정은 말고 어서 먼저 골라 봐. 그리고 내가 너한테 줄 게 있어. (침대 밑의 상자들 중에서 화려한 색깔의 스웨터를 찾아낸다.) 너의 생일날 주려고 두었던 건데, 헤어지는 날 선물이 됐군.

기임: (자양에게서 스웨터를 받아 몸에 대본다.) 근사한데!

다링: (자양의 침대 밑을 바라보며) 좋은 건 이 속에 다 있잖아요! 이걸 가져가도 돼요?

기임: 안 돼, 그건 손대지 마.

자양: 가져가요.

다링: (자양의 침대 밑에서 상자 하나를 꺼낸다.) 이건 뭐죠?

자양: 북어 대가리죠. 그건 가져가세요. 꼭 필요할 겁니다.

다링: 북어 대가리……?

기임: 이게 왜 필요한지는 두고 보면 알게 될 거야. (상자를 열어서 북어 대가리를 하나 꺼내 자양에게 준다.) 난 너한테 이것밖에 줄 게 없군. 내 생각이 날 거야. 항상 곁에 두고 보라구.

자양: (북어 대가리를 받으며) 그래, 언제나 내 곁에 두고 볼게.

창고 밖에서 트럭의 재촉하는 경음기가 울린다. 다링은 서둘러서 물건들을 담요에 담는다.

다링: 아버지가 재촉해요. (상자와 담요를 들며) 어서 들고 나가요.

기임: (짐 가방을 들고, 자양에게) 그럼 잘 있어.

자양: (마지못해 대답한다.) 잘 가……. 가서 행복

해.

기임과 다링, 창고 밖으로 나간다. 자양은 북어 대가리를 식탁 위에 놓고, 떠나는 기임을 바라본다. 창고 문 앞에서 자양과 기침의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기임: (소리) 이 창고 앞의 상자들은 어쩔 거야? 내가 좀 창고 안에 옮겨 주고 갈까?

자양: 괜찮아!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어!

창고 밖으로 떠나는 것이 즐겁다는 듯이 기임의 환호성이 들린다. 트럭 운전수와 다링의 웃음소리로 들린다. 잠시 후, 트럭이 경음기를 울리며 떠나는 소리가 들린다. 창고는 조용해진다. 자양, 식탁 앞에 힘없이 주저앉는다. 늙고 허약해진 모습이다. 그는 식탁 위에 놓여 있는 북어 대가리를 물끄러미 바라본다.

자양: 그래, 나도 너처럼 머리만 남았군. 그저 쓸쓸하고…… 허무한 생각으로 가득 찬…… 머리만…… 덜렁…… 남은 거야. (두 손으로 북어 대가리를 집어서 얼굴 가까이 마주 바라보며) 말해 보렴, 네 눈엔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그토록 오랜 나날…… 나는 이 어둡고 조그만 창고 속에서…… 행복했었다. 상자들을 옮겨 오고…… 내보내며…… 내가 맡고 있는 일을 성실하게 잘하고 있다는 뿌듯함…… 그게 내 삶을 지탱해 왔었는데……. 그러나 만약에…… 세상이 엉뚱하게 잘못되고 있는 것이라면…… 이 창고 속에서의 성실함이…… 무슨 소용 있는 거지? (사이) 북어 대가리야, 왜 말이 없냐? 멀뚱멀뚱 바라만 볼 뿐 왜 대답이 없어? (북어 대가리를 식탁 위에 내려놓는다.) 아냐, 내 의심은 틀린 거야. 덜렁 남은 머릿속의 생각만으로 세상을 잘못봤다구 판단해선 안 돼. (손수레에 실린 상자를 서류와 대조하며 혼자서 쌓기 시작한다.) 제자리에 상자들을 옮겨 놓아라! 정확하게 쌓아! 틀리면 안 돼! 단 하나의 착오도 없게,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된다.

자양, 느릿느릿 정성을 다해 상자들을 쌓는다. 무대 조명, 서서히 자양에게 압축되면서 암전한다.

— 막

- 이강백, <북어 대가리>

10.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진실을 은폐하려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 ② 대화를 통해 결국 자양의 가치관이 바뀔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 ③ 다링은 대상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 ④ 운전수는 책임감 없는 태도로 인한 비극적 결과를 모른 채하는 뻔뻔한 모습을 보여준다.
- ⑤ 자양은 자신의 일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모르며, 하나의 부속품처럼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

11. 윗글을 공연하기 위한 회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트럭 경음기 소리를 음향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야지.
- ② 자양은 원칙을 철저히 지키려는 성격의 인물로 설정해야지.
- ③ 다링 역을 맡은 배우는 욕심쟁이 느낌이 나도록 분장을 해야겠어.
- ④ 소품으로 편지, 북어, 호적 서류, 스웨터 등을 반드시 준비해야겠군.
- ⑤ 무대는 창고 안으로 창고지기가 숙식을 해결하는 공간으로 꾸며야지.

【12~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 두 명의 창고지기인 자양과 기임은 새벽마다 트럭에 실려 온 상자를 내리고 창고에 보관된 상자를 트럭에 싣는 일을 한다. 매사에 꼼꼼하게 일하는 자양과 달리 기임은 자신의 일에 회의를 느끼며 자양의 성실함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다. 기임은 상자를 싣고 내리는 일보다 트럭 운전수 의 딸인 다령과의 만남에 열중한다. 창고를 나가고 싶어 하는 기임은 다령의 부추김에 상자 하나를 바꾸어 트럭에 싣는다. 이를 뒤늦게 알아챈 자양은 잘못 나간 상자 번호를 확인하고, 상자 주인에게 잘못 을 시인하는 편지를 쓴다.

등장인물 자양(창고지기), 기임(창고지기), 트럭 운전수, 다령(트럭 운전수의 딸)

창고 밖으로 상자들을 옮기고 있던 자양과 트럭 운전수 사이에 언쟁이 벌어진다. 자양은 트럭 운전 수에게 편지를 전달해 주도록 간청하고 운전수는 목 청을 높여 가며 거절의 이유를 설명한다.

운전수: 그건 미친 짓이야! 일부러 잘못했다고 편 지를 보낼 필요는 없어!

자양: (편지를 운전수에게 내밀며) 제발 보내야 해 요!

운전수: 여봐, 내가 상자들을 운반하고 다니니까 상자 주인과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한 모양인데, 그건 큰 착각이야. ㉠난 말이야,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싣고 왔다가 그냥 실어 가는 거라구. 실제로 내가 아는 건, 정거장에서 여러 트럭들이 ㉡상자를 나눠 받 을 때 만나는 분배 반장 딸기코하고, 창고에 보관했 다가 다시 나눠 싣고 정거장에 가서 만나는 접수 반 장 외눈깔, 그 둘뿐이라구. 딸기코와 외눈깔은 내가 불인 별명인데, 물론 진짜 이름이야 있겠지. 하지만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지 않고 노름꾼이라 하듯이 나도 그들을 별명으로만 불러. 어쨌든 ㉢딸기코가 상자를 분배하는 곳은 정거장의 왼쪽이고, 외눈깔이 상자를 접수하는 곳은 정거장의 오른쪽이야. 그래서 그들은 같은 정거장에서 둘 다 상자를 취급하면서도 서로 얼굴 한번 볼 수조차 없어.

자양: 별명이든 이름이든 상관없어요. (편지를 억

지로 운전수 손에 쥐어 준다.) ㉣상자를 싣고 가는 곳에 내 편지를 갖다주면서, 다음 사람에게 전달하 라고 하면 되거든요.

운전수: 내가 자네 편지를 외눈깔에게 주면, 외눈 깔은 그다음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다음 사람은 또 다음 사람에게…… 계속해서 운반되는 상자들을 따 라가 맨 나중엔 주인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거지?

자양: 네, 바로 그겁니다.

운전수: 그게 또 큰 착각이라구. 부속품이 든 상자 들은 말야, 중간중간에서 여러 갈래로 수없이 나눠 지거든.

자양: 부속품 상자들은 결국 한 군데로 모아지는 것이 아닙니까?

운전수: 물론, 모아지는 곳도 있겠지. ㉤상자들이 한 군데에서 나와 여러 군데로 흩어지느냐, 여러 군 데에서 나와 한 군데로 모아지느냐……. 그건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어쨌든 중간에 있는 우리가 어떻다고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

자양: 그래도 상자 주인에게는 반드시 알려 줘야 죠. 엉뚱하게 바뀐 상자 하나 때문에 뭔가 잘못 만들 어지면 안 되잖아요.

운전수: 잘못 만들어진다니……. 그게 뭔데?

다령: (멀리서 듣고 있다가 큰 소리로 외친다.) 어 떤 굉장한 기계래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즐겁고 기쁘게 해 주는 신기한 기계죠!

운전수: (다령에게 외친다.) 무슨 기계라구?

다령: (큰 소리로) 기계가 아니라 폭탄이라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죽여요!

운전수: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자양에 게) 어쨌든 상자 속의 부속품으로 뭘 만드는지 알 수 는 없어. 만약 폭탄을 만든다면 오히려 상자가 바뀐 것이 사람들의 목숨을 살릴 테니까 잘된 일이잖아? (자양의 편지를 허공에 들고 두 조각으로 찢으며) 여 봐, 자넨 너무 배짱이 약해. 이 조그만 창고 속에서 모든 걸 성실하게 잘했다는 것이, 창고 밖에서는 매 우 큰 잘못이 된다고 생각해봐. 그럼 상자 하나쯤 틀 렸다고 안절부절못하진 않을 거야. (두 조각으로 찢 은 편지를 자양의 바지 양쪽 호주머니에 쑤셔 넣는 다.) 무슨 일이 생겨도 창고 밖으로 알릴 필요는 없 어. 그게 잘한 일인지 못한 일인지 모를 바에야 그냥 덮어두라구. 창고 속의 자네한테는, 그게 배짱 편한 거야.

자양: (손에 들고 있는 서류를 가리키며) 그렇다면

이 서류들은 뭐니까? 누군가 이 서류들을 보면, 상자가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운전수: 서류가 완전하다고 믿는 건 바보들뿐이지! 좋은 예가 있어. 내 아내는 옛날에 죽었는데 사망 신고를 안 했거든. 그래서 구청에서 호적을 떼어보면 지금도 서류상으로는 버젓하게 살아 있는 것으로 나온다구. 자, 굼벡이 양반, 꾸물대지 말고 어서 상자들이나 옮겨!

자양과 트럭 운전수, 손수레에 실은 상자들을 창고 밖으로 운반해 간다. 침대에 앉아 있던 기임은 일어나서 자신의 담요를 둘둘 말아 걷는다. 그리고 침대맡의 낡은 짐 가방을 꺼내 물건을 주워 담는다. 다링, 기임의 곁으로 다가온다.

다링: 마침내 결정한 거예요?

기임: 그래, 함께 가서 살기로 했어.

다링: (살림 도구들이 있는 곳에서 접시, 그릇, 찻잔들을 가져와 낡은 짐 가방에 담으며) 무조건 다 가져가요.

기임: (다링이 담은 것들을 다시 꺼내 놓으며) 아냐, 반절만 내 것인걸!

다링: 둘이서 함께 쓰던 물건은 어쩌려구요? 반절로 나눌 수도 없잖아요.

자양과 운전수, 손수레에 상자를 싣고 창고 안으로 들어온다.

운전수: 우리 트럭에 상자들을 다 옮겼어. 그런데 너희는 짐도 안 싸고 뭘 했지?

자양: 짐이라니……?

기임: 으음, 그렇게 됐어. 오늘 나는 이 창고 속을 떠난다구!

자양: 정말 가는 거야? 이렇게 갑자기……?

기임: 미안해! 그런데 막상 떠나려니까 조금은 서운하군. (창고 안을 둘러보며) 너하고 여기서 얼마나 살았더라……? 몇십 년은 훨씬 더 될 거야, 아마…….

자양: 그래…… 우리 철부지 시절부터 이 창고지 기였어.

기임: 언제나 너는 나를 고맙게도 보살펴 줬지.

자양: 날 의붓어미라고 미워했으면서 뭘…….

기임: 진짜로 미워한 건 아니잖아?

자양: 나도 알아. (기임을 껴안는다.) 제발 가지 말아! 이 창고도, 나도, 전혀 달라진 게 없잖아?

기임: 그건 안 돼. 이 창고는 더 이상 내가 살 곳이 아냐.

운전수: 남자들끼리 헤어지면서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창고 밖으로 나가며) 시간 없어! 나 먼저 트럭에 가서 있을 테니까 너희는 어서 짐 싸 들고 나와!

다링: (놋쇠 국자로 소리 나게 두드리며) 그만하고, 서로 자기 물건들이나 골라 봐요.

기임: (자양의 포옹을 풀며) 난 내 물건을 잘 모르겠어. 굼벡아, 네가 골라 줘.

자양: 아냐, 쓸 만한 게 있거든 모두 네가 가져.

기임: 너는 이 창고 속에서 혼자 살 텐데…….

자양: 내 걱정은 말고 어서 먼저 골라 봐. 그리고 내가 너한테 줄 게 있어. (침대 밑의 상자들 중에서 화려한 색깔의 스웨터를 찾아낸다.) 너의 생일날 주려고 두었던 건데, 헤어지는 날 선물이 됐군.

기임: (자양에게서 스웨터를 받아 몸에 대본다.) 근사한데!

다링: (자양의 침대 밑을 바라보며) 좋은 건 이 속에 다 있잖아요! 이걸 가져가도 돼요?

기임: 안 돼, 그건 손대지 마.

자양: 가져가요.

다링: (자양의 침대 밑에서 상자 하나를 꺼낸다.) 이건 뭐죠?

자양: 북어 대가리죠. 그건 가져가세요. 꼭 필요할 겁니다.

다링: 북어 대가리……?

기임: 이게 왜 필요한지는 두고 보면 알게 될 거야. (상자를 열어서 북어 대가리를 하나 꺼내 자양에게 준다.) 난 너한테 이것밖에 줄 게 없군. 내 생각이 날 거야. 항상 곁에 두고 보라구.

자양: (북어 대가리를 받으며) 그래, 언제나 내 곁에 두고 볼게.

창고 밖에서 트럭의 재촉하는 경음기가 울린다. 다링은 서둘러서 물건들을 담요에 담는다.

다링: 아버지가 재촉해요. (상자와 담요를 들며) 어서 들고 나가요.

기임: (짐 가방을 들고, 자양에게) 그럼 잘 있어.

자양: (마지못해 대답한다.) 잘 가……. 가서 행복

해.

기임과 다링, 창고 밖으로 나간다. 자양은 북어 대가리를 식탁 위에 놓고, 떠나는 기임을 바라본다. 창고 문 앞에서 자양과 기침의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기임: (소리) 이 창고 앞의 상자들은 어쩔 거야? 내가 좀 창고 안에 옮겨 주고 갈까?

자양: 괜찮아!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어!

창고 밖으로 떠나는 것이 즐겁다는 듯이 기임의 환호성이 들린다. 트럭 운전수와 다링의 웃음소리로 들린다. 잠시 후, 트럭이 경음기를 울리며 떠나는 소리가 들린다. 창고는 조용해진다. 자양, 식탁 앞에 힘없이 주저앉는다. 늙고 허약해진 모습이다. 그는 식탁 위에 놓여 있는 북어 대가리를 물끄러미 바라본다.

자양: 그래, 나도 너처럼 머리만 남았군. 그저 쓸쓸하고…… 허무한 생각으로 가득 찬…… 머리만…… 덜렁…… 남은 거야. (두 손으로 북어 대가리를 집어서 얼굴 가까이 마주 바라보며) 말해 보렴, 네 눈엔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그토록 오랜 나날…… 나는 이 어둡고 조그만 창고 속에서…… 행복했었다. 상자들을 옮겨 오고…… 내보내며…… 내가 맡고 있는 일을 성실하게 잘하고 있다는 뿌듯함…… 그게 내 삶을 지탱해 왔었는데……. 그러나 만약에…… 세상이 엉뚱하게 잘못되고 있는 것이라면…… 이 창고 속에서의 성실함이…… 무슨 소용 있는 거지? (사이) 북어 대가리야, 왜 말이 없냐? 멀뚱멀뚱 바라만 볼 뿐 왜 대답이 없어? (북어 대가리를 식탁 위에 내려놓는다.) 아냐, 내 의심은 틀린 거야. 덜렁 남은 머릿속의 생각만으로 세상을 잘못봤다구 판단해선 안 돼. (손수레에 실린 상자를 서류와 대조하며 혼자서 쌓기 시작한다.) 제자리에 상자들을 옮겨 놓아라! 정확하게 쌓아! 틀리면 안 돼! 단 하나의 착오도 없게,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된다.

자양, 느릿느릿 정성을 다해 상자들을 쌓는다. 무대 조명, 서서히 자양에게 압축되면서 암전한다.

— 막

— 이강백, <북어 대가리>

1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현장감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투리를 사용하고 있다.
- ② 시간적 배경과 직업을 짐작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 ③ 언어유희적 대화를 통해 인물 사이의 갈등을 부각시키고 있다.
- ④ 상징적 소재와 인물의 내적 독백을 통해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인물 사이의 대화를 속도감 있게 전개하여 장면을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13. <보기>를 바탕으로 ㉠~㉣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현대 사회의 특징 중 하나는 분업화된 사회라는 것이다. 이런 속에서 모든 작업들은 효율성을 추구하여 분업화된 형태로 이루어지며 개인들은 자신이 맡은 일만 반복하며 살아간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이 하는 일의 전체 의미를 알지 못한다. 현대 사회의 또 다른 특징은 인간관계 단절이다. 개인들은 복잡한 사회 구조 속에서 극히 제한된 인간관계를 맺은 채 살아간다. 이 작품은 이런 산업 사회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 ① ㉠은 전체 의미를 모르며 일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주는군.
- ② ㉡은 익명성을 통해 현대인들의 단절된 인간관계를 짐작할 수 있군.
- ③ ㉢은 분업화된 형태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군.
- ④ ㉣은 일 처리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군.
- ⑤ ㉤은 복잡한 사회 구조 속에서 돌아가는 현대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군.

14. 윗글의 두 인물 사이의 갈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양과 운전수의 갈등은 서류에 대한 상반된 인식에서도 드러난다.
- ② 자양은 상자의 주인에게 편지를 보내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으려 한다.
- ③ 운전수는 상자 주인에게 자양의 편지가 도착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 ④ 자양이 운전수의 손에 편지를 억지로 쥐어 주는 것은 신념에 따른 행위이다.
- ⑤ 운전수는 자양의 말에 일부 동의하지만 자신의 책임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거절한다.

【15~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 두 명의 창고지기인 자양과 기임은 새벽마다 트럭에 실려 온 상자를 내리고 창고에 보관된 상자를 트럭에 싣는 일을 한다. 매사에 꼼꼼하게 일하는 자양과 달리 기임은 자신의 일에 회의를 느끼며 자양의 성실함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기임은 상자를 싣고 내리는 일보다 트럭 운전수의 딸인 다림과의 만남에 열중한다. 창고를 나가고 싶어 하는 기임은 다림의 부추김에 상자 하나를 바꾸어 트럭에 싣는다. 이를 뒤늦게 알아챈 자양은 잘못 나간 상자 번호를 확인하고, 상자 주인에게 잘못을 시인하는 편지를 쓴다.

등장인물 자양(창고지기), 기임(창고지기), 트럭 운전수, 다림(트럭 운전수의 딸)

창고 밖으로 상자들을 옮기고 있던 자양과 트럭 운전수 사이에 언쟁이 벌어진다. 자양은 트럭 운전수에게 편지를 전달해 주도록 간청하고 운전수는 목청을 높여 가며 거절의 이유를 설명한다.

운전수: 그건 미친 짓이야! 일부러 잘못했다고 편지를 보낼 필요는 없어!

자양: (편지를 운전수에게 내밀며) 제발 보내야 해요!

운전수: 여봐, 내가 상자들을 운반하고 다니니까

상자 주인과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한 모양인데, 그건 큰 착각이야. 난 말이야,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싣고 왔다가 그냥 실어 가는 거라구. 실제로 내가 아는 건, 정거장에서 여러 트럭들이 상자를 나눠 받을 때 만나는 분배 반장 딸기코하고, 창고에 보관했다가 다시 나눠 싣고 정거장에 가서 만나는 접수 반장 외눈깔, 그 둘뿐이라구. 딸기코와 외눈깔은 내가 붙인 별명인데, 물론 진짜 이름이야 있겠지. 하지만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지 않고 노름꾼이라 하듯이 나도 그들을 별명으로만 불러. 어쨌든 딸기코가 상자를 분배하는 곳은 정거장의 왼쪽이고, 외눈깔이 상자를 접수하는 곳은 정거장의 오른쪽이야. 그래서 그들은 같은 정거장에서 둘 다 상자를 취급하면서도 서로 얼굴 한번 볼 수조차 없어.

자양: 별명이든 이름이든 상관없어요. (편지를 억지로 운전수 손에 쥐어 준다.) 상자를 싣고 가는 곳에 내 편지를 갖다주면서, 다음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하면 되거든요.

운전수: 내가 자네 편지를 외눈깔에게 주면, 외눈깔은 그다음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다음 사람은 또 다음 사람에게…… 계속해서 운반되는 상자들을 따라가 맨 나중엔 주인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거지?

자양: 네, 바로 그겁니다.

운전수: 그게 또 큰 착각이라구. 부속품이 든 상자들은 말야, 중간중간에서 여러 갈래로 수없이 나눠 지거든.

자양: 부속품 상자들은 결국 한 군데로 모아지는 것이 아닙니까?

운전수: 물론, 모아지는 곳도 있겠지. 상자들이 한 군데에서 나와 여러 군데로 흩어지느냐, 여러 군데에서 나와 한 군데로 모아지느냐……. 그건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어쨌든 중간에 있는 우리가 어떻다고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

자양: 그래도 상자 주인에게는 반드시 알려 줘야죠. 엉뚱하게 바뀐 상자 하나 때문에 뭔가 잘못 만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운전수: 잘못 만들어진다니……. 그게 뭔데?

다림: (멀리서 듣고 있다가 큰 소리로 외친다.) 어떤 굉장한 기계래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즐겁고 기쁘게 해 주는 신기한 기계죠!

운전수: (다림에게 외친다.) 무슨 기계라구?

다림: (큰 소리로) 기계가 아니라 폭탄이래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죽여요!

운전수: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자앙에게) 어쨌든 상자 속의 부속품으로 뭘 만드는지 알 수는 없어. 만약 폭탄을 만든다면 오히려 상자가 바뀔 것이 사람들의 목숨을 살릴 테니까 잘된 일이잖아? (자앙의 편지를 허공에 들고 두 조각으로 찢으며) 여봐, 자넨 너무 배짱이 약해. 이 조그만 창고 속에서 모든 걸 성실하게 잘했다는 것이, 창고 밖에서는 매우 큰 잘못이 된다고 생각해봐. 그럼 상자 하나쯤 틀렸다고 안절부절못하진 않을 거야. (두 조각으로 찢은 편지를 자앙의 바지 양쪽 호주머니에 쑤셔 넣는다.) 무슨 일이 생겨도 창고 밖으로 알릴 필요는 없어. 그게 잘한 일인지 못한 일인지 모를 바에야 그냥 덮어두라구. 창고 속의 자네한테는, 그게 배짱 편한 거야.

자앙: (손에 들고 있는 서류를 가리키며) 그렇다면 이 서류들은 뭘니까? 누군가 이 서류들을 보면, 상자가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운전수: 서류가 완전하다고 믿는 건 바보들뿐이지! 좋은 예가 있어. 내 아내는 옛날에 죽었는데 사망 신고를 안 했거든. 그래서 구청에서 호적을 떼어보면 지금도 서류상으로는 버젓하게 살아 있는 것으로 나온다구. 자, 굼벵이 양반, 꾸물대지 말고 어서 상자들이나 옮겨!

자앙과 트럭 운전수, 손수레에 실은 상자들을 창고 밖으로 운반해 간다. 침대에 앉아 있던 기임은 일어나서 자신의 담요를 둘둘 말아 걷는다. 그리고 침대맡의 낡은 짐 가방을 꺼내 물건을 주워 담는다. 다링, 기임의 곁으로 다가온다.

다링: 마침내 결정한 거예요?

기임: 그래, 함께 가서 살기로 했어.

다링: (살림 도구들이 있는 곳에서 접시, 그릇, 찻잔들을 가져와 낡은 짐 가방에 담으며) 무조건 다 가져가요.

기임: (다링이 담은 것들을 다시 꺼내 놓으며) 아냐, 반절만 내 것인걸!

다링: 둘이서 함께 쓰던 물건은 어찌려구요? 반절로 나눌 수도 없잖아요.

자앙과 운전수, 손수레에 상자를 싣고 창고 안으로 들어온다.

운전수: 우리 트럭에 상자들을 다 옮겼어. 그런데 너희는 짐도 안 싸고 뭘 했지?

자앙: 짐이라니……?

기임: 으음, 그렇게 됐어. 오늘 나는 이 창고 속을 떠난다구!

자앙: 정말 가는 거야? 이렇게 갑자기……?

기임: 미안해! 그런데 막상 떠나려니까 조금은 서운하군. (창고 안을 둘러보며) 너하고 여기서 얼마나 살았더라……? 몇십 년은 훨씬 더 될 거야, 아마…….

자앙: 그래…… 우리 철부지 시절부터 이 창고지 기였어.

기임: 언제나 너는 나를 고맙게도 보살펴 줬지.

자앙: 날 의붓어미라고 미워했으면서 뭘…….

기임: 진짜로 미워한 건 아니잖아?

자앙: 나도 알아. (기임을 껴안는다.) 제발 가지 말아! 이 창고도, 나도, 전혀 달라진 게 없잖아?

기임: 그건 안 돼. 이 창고는 더 이상 내가 살 곳이 아냐.

운전수: 남자들끼리 헤어지면서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창고 밖으로 나가며) 시간 없어! 나 먼저 트럭에 가서 있을 테니까 너희는 어서 짐 싸 들고 나와!

다링: (늦쇠 국자로 소리 나게 두드리며) 그만하고, 서로 자기 물건들이나 골라 봐요.

기임: (자앙의 포옹을 풀며) 난 내 물건을 잘 모르겠어. 굼벵아, 네가 골라 줘.

자앙: 아냐, 쓸 만한 게 있거든 모두 네가 가져.

기임: 너는 이 창고 속에서 혼자 살 텐데…….

자앙: 내 걱정은 말고 어서 먼저 골라 봐. 그리고 내가 너한테 줄 게 있어. (침대 밑의 상자들 중에서 화려한 색깔의 스웨터를 찾아낸다.) 너의 생일날 주려고 두었던 건데, 헤어지는 날 선물이 됐군.

기임: (자앙에게서 스웨터를 받아 몸에 대본다.) 근사한데!

다링: (자앙의 침대 밑을 바라보며) 좋은 건 이 속에 다 있잖아요! 이걸 가져가도 돼요?

기임: 안 돼, 그건 손대지 마.

자앙: 가져가요.

다링: (자앙의 침대 밑에서 상자 하나를 꺼낸다.) 이건 뭐죠?

자앙: 북어 대가리죠. 그건 가져가세요. 꼭 필요할 겁니다.

다령: 북어 대가리……?

기임: 이게 왜 필요한지는 두고 보면 알게 될 거야. (상자를 열어서 북어 대가리를 하나 꺼내 자앙에게 준다.) 난 너한테 이것밖에 줄 게 없군. 내 생각이 날 거야. 항상 곁에 두고 보라구.

자앙: (북어 대가리를 받으며) 그래, 언제나 내 곁에 두고 볼게.

창고 밖에서 트럭의 재촉하는 경음기가 울린다. 다령은 서둘러서 물건들을 담요에 담는다.

다령: 아버지가 재촉해요. (상자와 담요를 들며) 어서 들고 나가요.

기임: (짐 가방을 들고, 자앙에게) 그럼 잘 있어.

자앙: (마지못해 대답한다.) 잘 가……. 가서 행복해.

기임과 다령, 창고 밖으로 나간다. 자앙은 북어 대가리를 식탁 위에 놓고, 떠나는 기임을 바라본다. 창고 문 앞에서 자앙과 기침의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기임: (소리) 이 창고 앞의 상자들은 어쩔 거야? 내가 좀 창고 안에 옮겨 주고 갈까?

자앙: 괜찮아!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어!

창고 밖으로 떠나는 것이 즐겁다는 듯이 기임의 환호성이 들린다. 트럭 운전수와 다령의 웃음소리로 들린다. 잠시 후, 트럭이 경음기를 울리며 떠나는 소리가 들린다. 창고는 조용해진다. 자앙, 식탁 앞에 힘없이 주저앉는다. 늙고 허약해진 모습이다. 그는 식탁 위에 놓여 있는 북어 대가리를 물끄러미 바라본다.

자앙: 그래, 나도 너처럼 머리만 남았군. 그저 쓸쓸하고…… 허무한 생각으로 가득 찬…… 머리만…… 덜렁…… 남은 거야. (두 손으로 북어 대가리를 집어서 얼굴 가까이 마주 바라보며) 말해 보렴, 네 눈엔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그토록 오랜 나날…… 나는 이 어둡고 조그만 창고 속에서…… 행복했었다. 상자들을 옮겨 오고…… 내보내며…… 내가 맡고 있는 일을 성실하게 잘하고 있다는 뿌듯함…… 그게 내 삶을 지탱해 왔었는데……. 그러나 만약에…… 세상이 엉뚱하게 잘못되고 있는 것이라

면…… 이 창고 속에서의 성실함이…… 무슨 소용 있는 거지? (사이) 북어 대가리아, 왜 말이 없냐? 멀뚱멀뚱 바라만 볼 뿐 왜 대답이 없어? (북어 대가리를 식탁 위에 내려놓는다.) 아냐, 내 의심은 틀린 거야. 덜렁 남은 머릿속의 생각만으로 세상을 잘못됐다구 판단해선 안 돼. (손수레에 실린 상자를 서류와 대조하며 혼자서 쌓기 시작한다.) 제자리에 상자들을 옮겨 놓아라! 정확하게 쌓아! 틀리면 안 돼! 단 하나의 착오도 없게,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된다.

자앙, 느릿느릿 정성을 다해 상자들을 쌓는다. 무대 조명, 서서히 자앙에게 압축되면서 암전한다.

— 막

— 이강백, <북어 대가리>

15. 윗글의 ‘편지’와 ‘서류’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편지’는 ‘자앙’과 ‘운전수’가 언쟁을 벌이는 요인이다.
- ② ‘자앙’에게 ‘편지’는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 ③ ‘자앙’에게 ‘서류’는 판단과 행위의 기준이다.
- ④ ‘운전수’에게 ‘서류’는 신뢰할 수 없는 대상이다.
- ⑤ ‘편지’는 ‘운전수’의 권위에 대한 ‘자앙’의 도전의 의미를 의미한다.

정답 및 해설

내신형 기출 문제

1. 정답 ⑤

윗글에서 '다령'은 '기임'과 떠나기로 결심한 후 타인에 대한 배려 없이 필요한 살림 도구를 챙기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에 '자양'의 고민에 대해 실질적인 정보를 주고 긍정적인 미래를 암시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자양'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솔직하고 성실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트럭 운전수'는 모순된 사회 구조 속에서 개인의 성실함은 오히려 해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에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② '자양'은 자신의 일에 대한 책임감과 자부심이 있었고, '기임'은 기계 부품처럼 반복되는 일상에 회의와 불만을 품어 게으름을 부리고 있었기에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③ '기임'은 기계 부품처럼 반복되는 일상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트럭 운전수' 역시도 자신이 살고 가는 것이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살고 왔다가 그냥 실어 가는 일을 하고 있기에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④ 윗글의 '창고 속에서 모든 걸 성실하게 잘했다는 것이, 창고 밖에서는 매우 큰 잘못이 된다'는 것은 창고 밖이 부조리하다면 창고 안에서의 성실함이 오히려 세상의 부조리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말로 창고 밖의 생활도 창고 안의 생활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 정답 ①

운전수는 '그들은 같은 정거장에서 둘 다 상자를 취급하면서도 서로 얼굴 한번 볼 수조차 없어.'라고 말하며 자양의 편지가 사회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반면 자양은 '별명이든 이름이든 상관없어요. (편지를 억지로 운전수 손에 쥐어 준다.) 상자를 싣고 가는 곳에 내 편지를 갖다주면서, 다음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하면 되거든요.'라고 말

하며 오로지 자신의 정직함만을 드러내고 있다. 자양은 자신이 하는 일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관심을 가지기보다 자신의 정직함을 보이려 하는 것인 반면 운전수는 자양의 편지가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칠 거라 보지 않기에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② 자양은 '누군가 이 서류들을 보면, 상자가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를 통해 서류를 판단과 행위의 기준으로 삼는 반면, 운전수는 '서류가 완전하다고 믿는 건 바보들뿐이지!'라고 말하며 신뢰할 수 없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③ 윗글의 '좋은 건 이 속에 다 있잖아요! 이걸 가져가도 돼요?'에서 다령의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성격이 드러나고, 윗글의 '아냐, 쓸 만한 게 있거든 모두 네가 가져.'를 통해 기임은 함께 생활한 자양에 대한 배려를 보여주고 있다.

④ 윗글에서 자양은 상자가 뒤바뀌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참고지기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내용이 담신 자신의 편지가 매우 중요한 것이라 믿지만, 운전수는 목청을 높여 가며 거절의 이유를 설명하며 자양의 편지가 아무 가치가 없다고 여긴다.

⑤ 기임은 일상에 회의와 불만을 품고 창고를 떠나기로 결심하는 반면에, 자양은 현실에 순응하고 창고를 지키면서 자신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려 한다.

3. 정답 ④

자양은 상자를 잘못 보낸 것에 대해 편지를 보내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하고 있을 뿐 상자의 용도를 알고 편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기에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① 윗글의 '자양은 트럭 운전수에게 편지를 전달해 주도록 간청하고'를 통해 자양은 편지를 상자 주인에게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적절하다.

② 윗글의 운전수는 잘못을 시인하는 것에 대해 '여봐, 자넨 너무 배짱이 약해. 이 조그만 창고 속에서 모든 걸 성실하게 잘했다는 것이, 창고 밖에서는 매우 큰 잘못이 된다'라고 말하며 '그게 잘한 일인지 못한 일인지 모를 바에야 그냥 덮어두라구.'라고 결론짓고 있다. 따라서 운전수는 사건을 덮으려고 하기에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③ 자양의 '그래도 상자 주인에게는 반드시 알려 줘야죠.'를 통해 자양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책임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운전수'나 '딸기코', '외눈깔'과 같이 등장인물을 직업이나 별명으로 명명함으로써 익명성을 통해 소통이 단절된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에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4. [정답] ⑤

인식을 전환하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 하는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 사회에 대한 불신으로 개인의 신념이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낸다는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① 산업 사회에서 부품처럼 살아가는 삶을 상징하는 동시에 파편화된 노동의 기계적 반복을 의미하며 부품과 같은 삶을 사는 현대인의 특징을 드러내는 것이다.

② 산업 사회에서 개인이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과 제대로 관계를 맺지 않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③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만 수행하기 때문에 개인이 사회의 부속품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드러내기에 분업화된 사회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④ 타인의 상황에 관심을 두지 않으려는 태도가 드러나며 부조리한 현실에서 개개인의 잘잘못을 가리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5. [정답] ⑤

㉠은 자신의 신념에 회의를 느끼고 혼란에 빠져 방향성과 실천력을 상실한 현대인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기에 진실을 외면한 채 서류에 영합하여 안일을 추구하는 인간이라는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나머지는 자신의 신념에 회의를 느끼고 혼란에 빠져 방향성과 실천력을 상실하여 소외되어 가는 현대인의 모습이 잘 드러내기에 적절하다.

6. [정답] ②

다령은 상자에 들은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기에 진지한 표정으로 몹시 불안해하며 ㉡을 말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운전수는 잘못을 시인하는 편지를 보내는 것에

대해 미쳤다고 생각하기에 언성을 높여 확신에 찬 태도로 ㉢을 말해야 한다.

③ 기임은 혼자 남겨진 자양이 걱정스럽고 염려스럽기에 상자를 옮겨 줄까 하고 있기에 염려하는 표정으로 ㉣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다.

④ 자양은 기임과 다령이 떠난 뒤 외롭고 쓸쓸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 맞기에 외로운 감정이 드러나도록 ㉤을 연기해야 한다는 것은 적절하다.

⑤ 자양은 자신의 신념과 태도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있기에 혼란스럽다는 표정으로 답답해하며 ㉥을 말해야 한다.

7. [정답] ⑤

다령은 '기계가 아니라 폭탄이래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죽여요!'라고 말하며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로 말을 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① 자양은 맡은 일을 성실히 하는 것이 옳다는 믿음으로, 창고 안의 삶에 만족해하다가 자신의 신념과 태도가 헛된 것일 수 있다는 회의를 느끼고 있기에 내적 갈등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② '자양'과 '운전수'의 갈등을 통해 사건을 전개하고 주제를 부각하기에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③ 편지 전달 여부에 대해 자양은 보내고자 하고, 운전수는 보내는 것이 미친 짓이라고 여기며 갈등이 드러나고 있다.

④ 서류에 대해 자양은 신뢰하는 태도를 보여준다면 운전수는 서류를 신뢰할 수 없는 대상으로 여기기에 이러한 인식 차이로 자양과 운전수의 갈등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8. [정답] ⑤

(라)에는 '자양'이 잠시 자신의 정체성이나 존재 가치에 회의를 느끼다가 다시 이를 추스르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는 다시 삶에 적응하고 삶과 세계에 대한 냉철한 성찰 없이 다시 기계적으로 일하는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기에 현대인의 소외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가)에서는 개인적인 성향에 따른 운전수와 자양의 갈등이 나타나지만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싼고 왔다가 그냥 실어 가는 거라구.'를 통해 그 이면

에는 개인의 노동이 파편화되고 각 존재들이 사회의 부속품처럼 된 현대 사회의 근원적인 문제가 깔려있어.

② (가)는 현대 산업 사회의 인간관계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는데, '딸기코와 외눈깔은 내가 붙인 별명인데'를 통해 서로가 서로의 고유한 본질이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은 채 피상적인 관계만 맺고 있는 현실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③ (나), (다)의 상자가 잘못 보내졌다고 편지를 보내려는 자양의 모습, 서류를 통해서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양의 모습에 대비하여 이런 것들이 모두 쓸모없다고 여기는 윤전수의 모습을 통해서 개인이 하는 일이 사회 전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알 수 없으며, 겉으로 나타나는 상황이 실제와는 동떨어진 현대 사회의 모습을 엿볼 수 있기에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④ (라)에 나타난 '자양'의 일시적인 회의는 (가), (나), (다)의 사회 현실에 내재된 문제를 통해 드러나는 방향성을 잃고 가치관의 혼란을 겪는 현대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9. [정답] ②

'자양'은 '북어 대가리'와 처지가 비슷하다고 여기며 '창고'를 떠나는 '기임'을 보며 회의감과 쓸쓸함을 느낄 뿐이다.

① 성실하게 살아온 '자양'이 과거의 삶을 생각했을 때 회의감을 느끼게 한다.

③ 삶과 세계에 대한 성찰은 하지만 이는 냉철한 성찰은 아니기에 결국 창고 안에서 해 온 일들을 반복하게 된다.

④ 몸통이 없다는 점에서 실천력과 방향성을 상실한 자양의 상황이며 성찰하지 않는 현대인의 모습을 나타낸다.

⑤ 궁극적으로는 가치관의 혼란과 부재를 그리고 방향성을 잃은 현대인의 모습을 드러낸다.

10. [정답] ⑤

자양은 자신이 편지를 부치는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모르고 있고, 기임과 다림이 떠난 후 다시 하나의 부속품처럼 일에 복귀하여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기에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① 진실을 은폐하려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닌 현대 사회에서 기계 부품처럼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는 것이기에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② 윤전수와 자양의 대화, 자양의 기임의 대화를 통해서도 자양의 가치관이 바뀔 것을 드러내지 않고 자양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기에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③ 다림은 생각이 깊지 않고 욕심이 많으며 이기적인 면모를 드러낼 뿐이기에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④ 윤전수는 책임감 없는 태도를 드러내기는 하나 그로 인한 비극적 결과에 대해서는 본문에 드러나지 않기에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11. [정답] ④

호적 서류는 윤전수가 서류는 믿을 게 못된다는 말에 근거를 두기 위해 언급한 것으로 실제 소재가 필요하지는 않기에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① 창고 밖에서 다림과 기임을 기다리는 트럭의 경음기 소리는 음향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

② 자양은 상자를 잘못 보낸 것에 대해 정직한 면모를 드러내기에 자양은 원칙을 철저히 지키려는 성격의 인물로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다.

③ 다림은 살림 도구를 다 챙겨가려는 모습에서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인물을 표상하기에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⑤ 인물들의 대화는 창고에서 벌어지기에 무대를 창고 안으로 하고 창고지기가 숙식을 해결하는 공간으로 꾸민다는 것은 적절하다.

12. [정답] ④

상징적 소재인 북어 대가리가 드러나 작품의 주제인 현대 사회에서 기계 부품처럼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① 윗글에 인물의 대사에는 사투리가 드러나지 않기에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② 공간적 배경인 '창고'나 '윤전수'라는 직업을 짐작할 수 있는 단어는 사용되었으나 시간적 배경을 알 수 있게 하는 단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③ 윗글에는 언어유희적 대화가 드러나지 않으며 인물 사이의 갈등을 부각시키고 있다.

⑤ 인물 사이의 대화가 드러나지만 이것이 속도감

있게 전개되어 장면이 빠르게 전환되지는 않기에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13. [정답] ④

㉠은 일처리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모습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 자양이 생각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기에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① ㉡은 산업 사회에서 부품처럼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며 전체 의미를 모르며 일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② ㉢에는 별명을 통해 인물을 드러내며 익명성을 통해 현대인들의 단절된 인간관계를 보여준다.

③ ㉣은 분업화된 형태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통해 산업 사회에서 개인이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⑤ ㉤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만 수행하는 모습을 통해 복잡한 사회 구조 속에서 돌아가는 현대 사회의 단면을 드러내고 있다.

14. [정답] ③

윗글에서는 윤전수가 상자가 상자 주인에게 도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기에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① 서류에 대해 자양은 신뢰하는 태도를 보여준다면 윤전수는 서류를 신뢰할 수 없는 대상으로 여기기에 이러한 인식 차이로 자양과 윤전수의 갈등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② 자양은 잘못을 시인하고 상자의 주인에게 편지를 보내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으려 하고 있기에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④ 자양이 윤전수의 손에 편지를 억지로 쥐어 주는 것은 자양의 정직하고 성실한 인물의 신념에 따른 행위라고 볼 수 있다.

⑤ 윗글의 '물론, 모아지는 곳도 있겠지. 상자들이 한 군데에서 나와 여러 군데로 흩어지느냐, 여러 군데에서 나와 한 군데로 모아지느냐……. 그건 그럴 수도 있구,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어쨌든 중간에 있는 우리가 어떻다고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를 통해 해당 선지가 적절함을 확인할 수 있다.

15. [정답] ⑤

'편지'는 자양의 잘못에 대한 시인이자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의미할 뿐 '윤전수'의 권위에 대한 '자양'의 도전이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편지'는 '자양'과 '윤전수'가 보낼지 보내지 말지로 언쟁을 벌이는 요인이다.

② '자양'에게 '편지'는 잘못을 시인한 후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이기에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③ '자양'에게 '서류'는 신뢰할 수 있는 대상으로, 판단과 행위의 기준라 볼 수 있다.

④ '윤전수'는 자신의 아내의 호적에 대한 내용까지 언급하며 '서류'는 신뢰할 수 없는 대상이라고 말했다.